

클라우제비츠 「戰爭論」의 ‘3位1體論’ 小考

許 南 洙
(국방대학교 교수)

1. 머 리 말
2. 「戰爭論」의 時代的 背景
3. 戰爭의 3位1體論
4. 軍事理論의 有用性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전쟁의 세기였던 20세기가 막을 내리면서 인류는 평화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품었지만, 21세기 初頭인 오늘도 지구촌의 가장 큰 화두는 여전히 전쟁이다. 전쟁은 과연 무엇이고, 왜 생기며,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문제들에 천착한 고전 가운데 동양에서는 단연 「孫子」를 꼽지만, 서양에서는 주저없이 프로이센의 장

군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가 저술한 「전쟁론」(Vom Kriege)을 내세운다. 「전쟁론」이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전쟁연구서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19세기의 유명한 군사 저술가인 골츠(Colmar von der Goltz)는 “클라우제비츠 이후 전쟁을 논하려는 군사 저술가는 마치 괴테 이후에 또 하나의 「파우스트」를, 또는 셰익스피어 이후에 또 다른 「햄릿」을 쓰려는 작가처럼 모험을 무릅쓰는 것과 같다. 전쟁의 본질에 관하여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모든 것은 군사사상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클라우제비츠를 의미)이 남긴 작품 속에서 정립된 형태로 발견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¹⁾ 또한 현대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이자 클라우제비츠 전문가인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는 「전쟁론」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를 열거하면서, “그의 저서는 단순히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관한 진정으로 위대한 유일한 책”이라는 극찬을 서슴지 않고 있다.²⁾

「전쟁론」은 한 마디로 현실 정치적 관점과 철학적 차원에서 전쟁의 본질을 파헤친 불멸의 고전이다. 단순한 군사서적이 아니라 전쟁철학서이자 정치학의 고전으로서 군인들은 물론 평화와 안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독서라 할 만하다. 고전을 읽는 작업은 ‘산 오르기’와 흡사하다. 험준하고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사전 훈련과 믿음직한 안내자가 필수적이다. 중국의 유명한 고전들은 解題나 註解 자체가 또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될 만큼 길 안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전쟁론」 역시 좋은 안내자와 함께 할 때 더 알차고 보람된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와 피터 파렛(Peter Paret)의 영문판에 함께

1) Colmar von der Goltz, *The Nation in Arms*(London, 1913), p. 1. Michael Howard, “The Influence of Clausewitz,” in Michael Howard & Peter Paret, ed. & tr., Carl von Clausewitz, *On War*(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84), p. 31에서 재인용. 이후부터 Clausewitz, *On War*로 표기함.

2) Bernard Brodie, “The Continuing Relevance of *On War*,” in Clausewitz, *On War*, pp. 52-53.

수록되어 있는 해제 성격의 논문들이나, 얼(Edward M. Earle)이 편집한 「현대전략 사상가」(*Makers of Modern Strategy*)속에 들어 있는 로트펠스(Hans Rothfels)의 개척자적이고 기념비적인 클라우제비츠 소개 논문은 매우 훌륭한 길 안내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해제들이 「전쟁론」의 본문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안내자의 설명만 듣고 실제 산행을 하지 않는다면 ‘산 오르기’에서 거둘 수 있는 그 어떤 수확도 누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본문 숙독하기’가 결여된 어떤 해제도 의미가 없다.

본 연구는 「전쟁론」의 본문을 더 잘 읽기 위한 안내의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전쟁론」에는 마찰, 군사적 천재, 重心 등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고, 각각 고유한 주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면 관계로 특히 「전쟁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의 본질에 관한 이론, 그 가운데서도 정수에 해당되는 ‘전쟁의 3위1체론’(trinity of war)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本稿는 우선 제2장에서 「전쟁론」의 태동 배경인 시대적 상황을 조망한 다음, 제3장에서 3위1체론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클라우제비츠가 정립한 군사이론이 어떠한 유용성을 지니는가를 논의하였다.

2. 「戰爭論」의 時代的 背景

무릇 한 사상은 ‘시대의 産物’이다. 그 사상이 싹트고 꽃이 피었던 시대적 환경과 토양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그 시대적 자양분 속에서 한 사상가의 知的 체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 낸 그 자신의 경험과 잇닿아 하나의 사상이 태동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경우는 특히 이 등식에 꼭 부합되는 예이다.

클라우제비츠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시기는 유럽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격동적인 시대였다. 이 시대는 프랑스 대혁명(1789년)이 상징하고 있듯이 엄

청난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변혁이 일어났던 시기였으며, 또한 공화국 프랑스와 이에 대적하는 帝國들 간의 帝國戰爭에 뒤이어 혜성같이 나타난 나폴레옹에 의하여 '전쟁의 혁명'도 일어났던 시기였다.³⁾ 그가 활동했던 당시 유럽의 시대적 상황은 크게 철학적·知的 분야와 정치적·군사적 분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것들이 그의 체험적·지적 경향을 좌우하였고, 당연히 그의 著作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1) 哲學的·知的 背景

18세기 후반 유럽의 철학적 기조는 합리주의 대신 개인의 자유와 人性을 강조하는 관념주의가 대두되었고, 칸트(Immanuel Kant), 헤겔(Georg W.F. Hegel), 레싱(Gotthold E. Lessing), 셸러(Friedrich von Schiller), 헤르더(Johann G. von Herder), 피히테(Johann G. Fichte), 괴테(Johann W. von Göthe) 등 철학과 문학사에 있어서 영원히 빛나는 위인들이 즐비하였다. 레싱이 출생한 1729년부터 괴테가 사망한 1832년(이 해에 「전쟁론」이 출간됨)까지 약 100년은 “독일 문화사의 최고 황금기”⁴⁾로 일컬어 질 정도였다. 그 주된 주제는 바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었고, 헬레니즘의 부활이라고까지 여겨지는 人性의 옹호였다.

프랑스로부터 남부 독일로, 그리고 전 유럽으로 번져나간 이러한 기풍은 오랜 동안 유럽사회의 기본틀을 형성해 온 교회와 국가(군주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고, 이 도전은 교회와 국가를 지탱해 온 정신적·철학적·

3) Aron은 클라우제비츠의 생애에 맞추어 이 시대를 둘로 나누어 유럽혁명과 帝國의 전쟁 시대(1793-1815), 신성동맹 조약하의 평화시대(1815-1831)로 구분하고, 前者를 클라우제비츠의 '행동의 시대,' 後者를 '침필의 시대'로 칭한 바 있다. Raymond Aron, *Clausewitz: Philosopher of War*, tr. by Christine Booker & Norman Stone(New York: A Touchstone Book, 1986), p. 11.

4) Koppel S. Pinson, *Modern Germany: Its History and Civilization* (New York, NY: Macmillan, 1954), p. 12.

가치관적 기존체계에 대한 거센 변혁 요구로 번졌다. 이러한 당시의 기풍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찌서 당대의 저명한 지성인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프랑스 혁명 사상을 옹호하고, 그 결과 심지어는 프랑스 혁명군과 나폴레옹을 한동안 '해방자'로 여겼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예컨대 헤겔은 1806년 예나(Jena) 戰役 前夜에 “나를 포함해서 모두는 프랑스군이 이기기를 바란다”라고 쓸 정도였다.⁵⁾ 이와 같은 교회 및 국가의 기존 가치 체계에 대한 도전은 결국 인성의 회복에 대한 열망과 인간(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현상과 전쟁의 본질을 탐구함에 있어서 人的 要素(human factors)를 그 어떤 요소보다도 강조하게 된 배경이었다.

그렇다면 클라우제비츠의 사유와 논리는 당대의 철학이나 사상에 얼마만큼이나 잇닿아 있는가? 그의 논리 전개에는 분명 당대 철학의 주류였던 관념론적 학풍이 깃들어 있다. 영국의 철학자 버클리(George Berkely)나 흄(David Hume)은 인간이 지식을 발굴하고 흡수하는 방법에는 인간의 외부 세계(자연, 우주 등)에 존재하는 어떤 힘이나 원리를 인지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확실성의 추구 따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관찰하고 내면의 의식 세계를 가동하여 지식(진실)에 접근하고 세계(또는 自我)를 형성하는 과정이야말로 지식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고도의 추상화(abstraction) 내지 일반화(generalization)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유와 논리체계는 칸트에 의해서 집대성되고, 클라우제비츠에게도 영향을 미쳤다.⁶⁾ 과학적 탐구나 접근방식이

5) *Ibid.*, p. 33.

6) Howard는 클라우제비츠가 칸트의 책을 읽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지만, 그가 칸트類의 知的 접근방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Michael Howard, *Clausewitz* (London: Oxford Univ. Press, 1985), p. 13. 한편 Paret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학교 재학 당시 칸트의 使徒였던 키제베티(Johann G. Kieseewetter)의 논리학·윤리학 기초 강의를 들었으며, 또한 수학, 철학, 미학에 관한 책과 논문들을 광범위하게 탐독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념론이나 변증법적 논리는 당시 교육을 받은 독일인들에게는 '기본'에 속하는 개념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클라우제비츠의 논리 체계와 독일 철학 간의 관련성에

전쟁 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조주의적 사고(dogmatism)를 배격하고, 전쟁을 이해하고 이론화하기 위해 오로지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행위, 정신적 요소라고 주장한 클라우제비츠의 논리는 곧바로 관념론과 통하는 것이다.

아울러 클라우제비츠의 철학적 사유와 논리의 틀을 논의하면서 변증법적 방법론을 빼놓을 수 없다. 피터 파렛의 평가에 의하면 그는 자기 책의 이론적 모델로서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법의 정신」과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⁷⁾ 클라우제비츠 자신도 1818년에 남긴 메모에서 “몽테스키외가 그의 주제를 다루었던 방법을 회미하게나마 내 마음속에 그려 보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⁸⁾ 그 방법이란 변증법적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正-反-합으로 구성되는 헤겔類의 변증법과도 다소 달라서, 正-反 명제의 대비를 통해 어떤 특정 현상의 고유한 특성을 명확하게 탐구하는 일종의 수정된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그가 후기 계몽주의의 美學 이론으로부터 차용한 목적과 수단의 대비적 개념도 이에 속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이론과 실제, 의도와 실행, 전쟁과 정치, 공격과 방어, 지성과 용기 등등 다양한 대칭적 이론 개념을 이용하였다. 이것들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 그리스 철학(헬레니즘 철학)의 재현이 가져온 이상과 현실, 또는 절대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개념과 현실 세계와의 대비와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그가 설정한 ‘절대전쟁’과 ‘현실전쟁’ 개념은 그 가장 대표적인 활용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知的탐구가 현실성과는 동떨어진 추상적 논의를 추구한 것은 아니다. 그가 전쟁현상에 대해서 철학적·학문적으로 접근했던 진정한 목적은 이론적 분석만이 다양하고도 보편적인 현실전쟁을 이해하는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Peter Paret, *Clausewitz and the State*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85), pp. 69, 84, 147-208.

7) Peter Paret, “The Genesis of *On War*,” in Clausewitz, *On War*, p. 15.

8) Clausewitz, “Author’s Preface,” in *On War*, p. 63.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법론적 틀로서 사유(추론)와 관찰 못지 않게 체험(그는 체험의 부족을 매우는 도구로 전쟁사를 활용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고 있다.

어떤 식물은 너무 높게 자라지 않아야 열매를 맺듯이, 현실적 術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론의 잎과 꽃은 적절히 다듬어져야 하고 그 식물은 알맞은 토양에 심어져야 한다. 알맞은 토양이란 바로 '경험'이다.⁹⁾

결국 그의 독창적인 방법론은 체험과 관찰, 역사적 해석과 추론(speculative reasoning)의 복합적 조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政治的・軍事的 背景

돌이켜 보건대, 18세기는 7년전쟁(1756-1763)을 제외한다면 일종의 '전쟁 침체기'였다고 할 수 있다. 戰爭史的인 차원에서 볼 때 18세기는 '制限的 君主戰'의 시대였다. 舊時代(ancient régime)의 군대는 주로 직업적 용병(mercenaries)들로 구성된 소규모 상비군의 형태를 띠었는데, 용병들은 王들의 財貨(invested capital)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함부로 소모하였다가는 재정에 큰 구멍이 날 우려가 있었다. 용병들 또한 하류층민이나 외국인들이 생계의 수단으로 급료를 노리고 군에 들어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싸울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자연히 이런 종류의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감시・통제로 유지되었으며, 각개 정찰이나 마초 획득을 위해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풀어 놓는 조치 따위는 탈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애당초 불가능하였다. 탈영의 위험이 적의 위험보다도 더 큰

9) Clausewitz, "Author's Comment," in *On War*, p. 61. 홀 따옴표 강조는 첨가된 것임.

상황이었던 것이다.¹⁰⁾

구시대의 전쟁 양태는 이러한 군대의 제한적 성격과 더불어 계몽주의적 조류의 영향 때문에 사생결단식의 극단적 적대나 결전으로 흐르지 않았다. 당대 유럽의 국제정세를 풍미하였던 세력 균형적 국제질서 개념도 제한전의 영향에 일조하였으며, 당시의 사회적·정신적 세계를 지배하였던 교회의 反戰的 敎示, 그리고 종교적 신앙심에 바탕을 둔 경건한 기사도(chivalry) 정신 또한 제한전 조류에 크게 한 몫 하였다. 대체로 당시의 전쟁 양태는 꽃무늬 장식이 특징인 로코코(rococo) 예술 양식처럼 儀式的이고, 또한 牧歌的인 성격이 짙었다. 여기서 牧歌的이란 의미는 王들의 군대들이 전투를 벌이는 동안, 농부들은 전장으로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밭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구시대의 전쟁은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서 치러졌던 것이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은 王이나 그 측근들의 업무이지 자신들과는 하등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 이기든 지든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은 실로 모든 구시대적인 것에 대한 혁명적 대해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혁명전쟁과 뒤이은 나폴레옹전쟁은 가장 획기적인 혁명을 불러왔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혁명의 실체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한 사람은 클라우제비츠의 師父인 샤른호르스트였다. 1793-1795년 간의 戰役이 끝난 직후 샤른호르스트는 이미 프랑스 혁명군의 승리 배경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촉발된 정치·사회적 변혁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하였다.¹¹⁾ 그 핵심은 프랑스 혁명군의 自發性과, 이에 따른 수적·정신적 우위였다. 즉 국민군(levée en masse)의 출현이었다.¹²⁾

10) Hans Rothfels, "Clausewitz," in Edward M. Earle,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 97.

11) Paret, *Clausewitz and the State*, p. 64; Howard, *Clausewitz*, p. 17.

12) Chales E. White, "The Enlightened Soldier: Scharnhorst and the Militärische Gesellschaft in Berlin, 1801-1805"(Ph.D. dissertation, Duke Univ., 1986), p. 42;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때 사용한 가공할 만한 도구는 바로 프랑스 국민군이었다. 그러나 이 도구는 사람과 돈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각오가 되어 있는 정부, 자신들을 목표에 일치시키고 그것이 요구하는 희생을 아무 불평없이 감수하는 국민에 의해 지지되는 정부만이 준비할 수 있는 도구였다. 그러자면 '국가'(또는 민족)의 개념이 서야 한다. 즉, 혁명으로 수립된 프랑스 공화국의 존립을 주변의 반동적 군주국가들이 위협했을 때 프랑스인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할 '자기 국가'·'자기 민족'이라는 의식이 먼저 정립되어야 국민군의 실체가 형성되는 것이다.¹³⁾ 이처럼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이 가져 온 전쟁개념과 전쟁수행 상의 결정적 변혁이란 바로 전쟁에 있어서 '국민과 정부의 결합'이었다.¹⁴⁾ 더 이상 전쟁은 왕이나 귀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제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곁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클라우제비츠 자신은 이 사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갑자기 전쟁은 다시 국민의 업무가 되었다. 3천만 명(당시 프랑스 인구를 의미함)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시민권자라고 여기게 되었다…… 국민들은 따라서 전쟁의 참여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그것은 정부와 군대만의 몫이었다. 국가의 모든 자원과 노력이 제한없이 동원될 수 있게 되었고, 아무 것도 이러한 전쟁 수행을 위한 노력을 회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적대자들은 극도의 위험에 직면하였다.¹⁵⁾

클라우제비츠는 '行動의 지성인'이었다. 1812년 프로이센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 반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자, 그는 애국심과 反프랑스 주

Rothfels, "Clausewitz," p. 97.

13) Paret, *Clausewitz and the State*, p. 64; White, "The Enlightened Soldier," pp. 42-43, 95-99.

14) Clausewitz, *On War*, pp. 609-610; Paret, *Clausewitz and the State*, p. 33; Howard, *Clausewitz*, p. 19.

15) Clausewitz, *On War*, p. 592.

의에 고무되어 러시아군으로의 종군을 감행하였다. 그 해 2월 그는 그 유명한 “충성서약”(I Believe and Profess)을 발표했다. 짧고 격렬한 문투로 구성된 이 서약문은 읽는 이로 하여금 곧바로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고 피가 끓어오를 만큼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시종일관 한다.

나는 확신하고 고백하노니 한 국민의 존재에 있어서 위엄과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없음; 이것들은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바쳐서라도 지켜져야 함; 이보다 더 신성한 의무는 없으며 이보다 더 숭고한 법칙은 없음; 겁쟁이의 굴종에 의한 수치의 자취는 영원히 지울 수 없음; 굴종의 독약 한 방울이 국민들 핏속에 섞여 후손들에게 이어지면 다음 세대의 힘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킨다는 것을 ……¹⁶⁾

1813년에서 1815년 사이, 즉 프로이센이 對프랑스 전쟁에 가담했던 시기에 프로이센은 일시적으로 개혁적 민족주의자들의 바람대로 개혁의 물결에 편승하는 듯 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처럼 王朝가 전복되는 대신 王室이 앞장서서 민족주의적인 개혁을 이끌어 줄 것을 염원했던 클라우제비츠의 소망¹⁷⁾은 그러나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된 1815년 이후 다시 좌절되었다. 復古主義가 회생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민족주의적 개혁가들을 억압하는 정권이 들어섰다. 마이클 하워드가 논평하듯이 프로이센의 정치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았고 군사적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였다.¹⁸⁾

16) Clausewitz, “I Believe and Profess,” in Edward M. Collins ed. & tr., Karl von Clausewitz, *War, Politics and Power* (South Bend, Ind.: Regnery/Gateway, Inc., 1962), pp. 301-304. 이 책은 「전쟁론」의 영문판 축약본 가운데 가장 압축된 내용으로 편집되었음.

17) 독일은 혁명이 필요할 만큼 사회적·정치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클라우제비츠는 믿었으며, 그의 왕실에 대한 충성심도 충분하였다. Aron, *Clausewitz: Philosopher of War*, pp. 33-34.

18) 1819년 12월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군 부대의 대대적 감축(34개 대대)을 내용하는 국방군 재편을 단행했는데, Boyen 국방장관과 Grolman 참모총장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하였다. *Ibid.*, p. 36; Howard, *Clausewitz*, p. 18.

보수파들에 의해 점령된 궁정(王)으로부터 위험한 급진적 개혁주의자로 의심받고, 보다 명예로운 군사 경력의 기회마저 얻지 못한 클라우제비츠는 1818년 38살의 젊은 나이에 좌절과 사색의 연못으로 침잠하여 저술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저작에 대해 예언적인 자신감을 나타낼 만큼 자부심 강한 저술가였다.

진리와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편견 없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전쟁에 관하여 다년간 숙고해 온 결실과 열심히 연구해 온 결과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전쟁이론에 혁명을 불러 일으킬 지도 모를 기본적 아이디어가 그 속에 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⁹⁾

그의 자부심 넘치는 예언은 그대로 적중되었다.

3. 戰爭의 3位1體論

(1) 개 요

피터 파렛은 논평하기를,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全編의 內的 통일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2가지의 변증법적 관계를 도입하였는데, 제1권의 첫 장에 그것이 소개되어 있으며, 그 첫째는 '이론전쟁'과 '현실전쟁'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전쟁을 구성하는 3대 요소 —폭력, 우연성의 작용, 합리성(이성)—사이의 관계라고 적시하였다.²⁰⁾ 「전쟁론」 전체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19) Clausewitz, "Two Notes by the Author," in *On War*, p. 70.

20) Peter Paret, "Clausewitz," in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Princeton,

위해서 필수적인 변증법적 틀의 하나가 바로 소위 '3위1체'(trinity)라는 것이다. 마이클 한델(Michael I. Handel)은 3위1체론을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²¹⁾

이제 그 출발점으로서, 클라우제비츠 자신이 유일하게 만족해 하였던 제1권 제1장의 맨 끝 부분에 있는 3위1체의 본문부터 살펴보자. 그는 이 부분의 소제목을 "이론을 위한 결론"(The Consequence for Theory)이라고 붙였다.

전쟁은 그 자신을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손쉽게 적응시키는 카멜레온 보
다도 더욱 변화무쌍하다. 총체적 현상으로서의 전쟁을 규정하는 지배적 성
향으로 '경이로운 3위1체'²²⁾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맹목적인 본능적 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원초
적 폭력, 증오, 적개심; 둘째, 창조적 정신이 자유롭게 구사될 수 있는 우
연성(chance)과 개연성(probability)의 작용; 셋째, 전쟁을 유일하게 합리
적(또는 이성적)인 것으로 이끌어 주는 정책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띠는 정
치에 대한 종속성 등이다.²³⁾

복잡하고 미묘한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이
처럼 단순화된 3위1체를 제시한 클라우제비츠는 이어서 이 3가지 성향들이
일반적으로 각각 인간적·사회적 행위자들의 활동 영역에 투영되었을 때

NJ: Princeton Univ. Press, 1986), p. 199; Howard, "The Influence of Clausewitz," p. 28.

21)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Classical Strategic Thought*, 3rd Revised & Expanded Edition(London: Frank Cass, 2001), p. 92.

22) 독일어 原典에서 이 부분의 단어는 'wunderliche' Dreifaltigkeit인데, wunderliche의 영
어 번역 단어는 번역자에 따라 paradoxical(역설적인), remarkable(주목할 만한, 눈에
확 띄는), strange(기이한), wonderful(놀랄만한) 등 다양하다. 그러나 wunderliche의
원래 의미는 marvelous, amazing, 또는 fascinating에 더 가깝다고 보아 本考에서는
'경이로운'으로 번역하였다.

23) Clausewitz, *On War*, p. 89.

어떻게 연관되어 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성향 가운데 첫 번째 측면은 국민과, 두 번째 측면은 지휘관 및 그의 부대와, 세 번째 측면은 정부와 주로 관련이 있다. 전쟁에서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 격정은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 우연성과 기회의 영역에서 용기와 재능이 발휘될 여지는 지휘관과 그의 부대의 특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은 오로지 정부만의 독자적인 몫이다.²⁴⁾

그런데 이러한 3가지 성향 간의 관계는 서로 동급의 무게와 동거리의 관련성(또는 힘의 변증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전쟁은 매우 靜的이고 단순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란 클라우제비츠가 이 절의 첫 문장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카멜레온보다도 더 변화무쌍하게 動的인 것이다. 계속해서 클라우제비츠의 논의를 따라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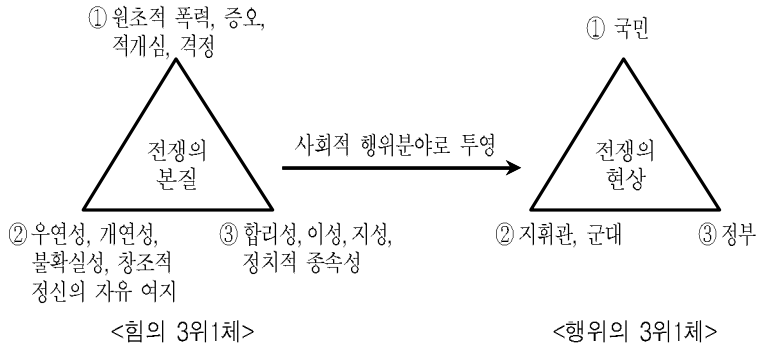
이러한 3가지 변수들은 각각의 주제에 깊이 뿌리내린 마치 서로 다른 법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만일 어떤 전쟁이론이 이 변수들 가운데 하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이 변수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자의적으로 고정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실제와 모순(갈등)을 드러낼 것이고 그 이유만으로도 그 이론은 전적으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마치 3개의 자석(引力) 가운데서 어떤 물체가 안정된 자리를 잡는 것과 같이, 이 3개의 변수(성향)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하튼 우리가 구성해 놓은 전쟁에 관한 기초개념은 전쟁이론의 기본구조를 밝히는 최초의 빛을 비춰 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주요 요소들을 구별하고 식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²⁵⁾

24) *Ibid.*, p. 89.

25) *Ibid.*, p. 89.

<그림 1> 힘의 3위1체와 행위의 3위1체



클라우제비츠의 3위1체론에 관한 논의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을 해석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전쟁 본질의 3위1체를 보면 3가지 요소(그의 표현대로라면 경향 또는 성향) 또는 3가지 극은 각각이 고유한 힘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극은 원초적 폭력·증오·적개심·걱정 같은 비이성적(irrational) 힘이고, 제2극은 우연성과 뉘처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비합리적(nonrational) 또는 비논리적(illogical) 힘이며, 제3극은 정치의 도구나 전쟁의 정치에 대한 종속성 등과 같은 이성적(reasonable)이고 합리적(rational) 힘이다. 그런 다음, 그는 이 힘의 각각을 인간적·사회적 행위 분야인 국민·지휘관과 군대·정부에 연계시켰다.

편의상 前者를 ‘힘의 3위1체’ 後者를 ‘행위의 3위1체’라 부른다면, 前者는 전쟁의 일반적인 內的 속성들 사이의 역학 관계를 다룬 전쟁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 後者는 행위자들에 의해서 그 內的 속성이 겉으로 표출된 ‘현상’으로서의 전쟁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前者의 제1극을 국민에게, 제2극을 지휘관과 군대에게, 제3극을 정부에게 연계시킨 것이 언제나 정확한 타당성을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피터 파

렛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황제 나폴레옹의 걱정과 폭력이 프랑스 국민들의 증오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었고, 전쟁에 지친 국민들이 나폴레옹 보다 더 합리적인 면이 있었다고 비판한다.²⁶⁾ 그러니까 폭력과 적개심을 국민에게, 우연성과 운을 지휘관과 군에게, 합리적 정책을 정부에게 연계시킨 것이 언제나 꼭 들어맞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츠는 3위1체의 3극들을 사회의 행위 영역에 연계시킬 때 단정적인 표현 대신 유보성이 내포된 “주로(혹은 대체로)”²⁷⁾라는 단어를 수식어로 선택하였다. 꼭 맞을 때도 있고, 안맞을 때도 있다는 뜻을 이미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론」에서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탐구하려는 사람들은 ‘행위의 3위1체’ 쪽이 아니라 ‘힘의 3위1체’ 쪽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해야 클라우제비츠가 설명하고자 하는 전쟁 본질의 실체에 더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3개의 극(요소)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자.

(2) 제1극: 폭력성과 적개심

제1극은 전쟁의 폭력성과 적개심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제1극은 기본적으로 다른 2개의 극과 비교해 볼 때 常數的 특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 본질에서 폭력을 제외하면 다른 아무것도 논의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자기 책의 맨 앞에서 전쟁을 정의하기를 “전쟁이란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대로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라고 했을 때 폭력이 전쟁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한 것이다.²⁸⁾ 조직화된 집단 폭력이어야말로 전쟁을 인간의 다른 활동과 구별 짓는 유일한 특징이다.

26) Paret, “Clausewitz,” p. 202.

27) 이 말의 독일어 原典은 ‘mehr ... zugewender’인데, 영어 번역은 단순히 ‘mainly’로 되어 있다. Clausewitz, *On War*, p. 89.

28) *Ibid.*, p. 75. 홉 따옴표는 강조를 위해 첨가한 것임.

그런데 이 폭력 행위는 그 적용에 있어서 아무런 논리적 제한이 없다. 살아있는 두 힘(폭력) 사이의 충돌에서는 어느 편도 자기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을 타도하지 못하면 적이 우리를 타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제한 폭력의 충돌은 그 극한 상태의 절대전쟁(absolute war)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절대 폭력은 어느 한편이 완전히 파멸될 때에만 종식 될 수 있다.²⁹⁾ 물론 이러한 절대전쟁 개념은 이론적 전쟁이고, 종이 위의 전쟁일 뿐이다. 그러나 절대전쟁은 마치 예술에서의 絶對美(absolute beauty)처럼,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의 추상적 준거틀(frame of reference)로서 기능하는 理想型(idealtypus)이다. 여기서 이상형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자연스럽다는 플라톤類의 철학적 개념이다. 이 준거틀에 비추어 보아 어떤 특정한 현실 전쟁이 얼마만큼 전쟁본질에 근접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프랑스 혁명전쟁과 뒤이은 나폴레옹 전쟁으로부터 전쟁 본질의 진정한 폭력성을 체험으로 깨달았다. 그는 “어떠한 관습적 제한도 받지 않은 전쟁이 그 본질적인 광포성을 한껏 드러냈다. 이는 국민들이 전쟁이라는 국가 대사에 새롭게 참여했기 때문이었다”고 썼다.³⁰⁾ 그렇다면 클라우제비츠는 어쩌서 전쟁의 본질이 폭력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을까? 피터 파렛의 논평에 의하면, 클라우제비츠의 폭력 강조는 그의 체험이나 전쟁사의 연구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는 유혈 보다는 교묘한 기동에 의해서 획득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해 온 놀랄 만치 수많은 당대 군사이론가들에 대한 대응 때문이었다고 한다.³¹⁾

29) *Ibid.*, pp. 77-78, 579.

30) *Ibid.*, p. 593.

31) Paret, “The Genesis of *On War*,” p. 20.

(3) 제2극: 우연성과 개연성

제2극의 우연성, 개연성 또는 불확실성이 전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핵심요소라는 점은 「전쟁론」의 도처에서 언급된다. 특히 제1권 제1장의 20~22절은 제2극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전쟁을 도박으로 만들어 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우연성(chance)이다. 이 요소는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른 어떤 인간 활동도 전쟁만큼 그렇게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우연성과 밀착된 것은 없다. 이 우연성의 요소를 통하여 예측 작업과 행운은 전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군사적 계산[전쟁수행 상의 여러 판단 작업을 의미]에는 절대적인 것 즉, 소위 수학적 요소가 확고하게 자리를 차지할 곳은 결코 없다. 애당초부터 전쟁에는 가능성, 개연성, 행운, 불운 등이 여러 갈래로 짜여진 직물처럼 얽혀 있다. 전쟁은 인간의 모든 행위 영역 가운데서 카드 게임과 가장 닮았다.³²⁾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 우연성과 불확실성의 영역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쟁이 카드 게임과도 같은 도박의 영역과 유사하다는 비유까지 내놓았다. 전쟁의 본질에 대한 파악의 심도와 그 표현의 정확성이 새삼 돋보인다.

그렇다면 전쟁의 이러한 불확실성과 우연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 과제는 클라우제비츠 이전의 수많은 군사이론가들이나 군인들도 끊임없이 천착해 온 주제였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 초엽에 걸쳐서는 자연과학의 원리와 지식체계에 따라 이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경향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로이드(Henry Lloyd : 1720-1783)나 뷔로우(Dietrich A. H. von Bülow : 1757-1807)같은 저명한 군사이론가들은 계량적 수치나 자료에 바탕을 둔 합리적 원칙을 도출하여 전쟁의 수행을 자연과학의 수준까지

32) Clausewitz, *On War*, pp. 85-86.

끌어 올리고, 이를 통하여 전쟁의 불확실성이나 우연성을 제한 내지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지도나 지형적 계측, 행군 계획표와 군수 조달, 또는 전선과 보급선 사이의 각도와 같은 수학적·기하학적 정확도의 추구로 전쟁에서의 '확실성'을 달성하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전쟁 수행에 있어서 과학적·수학적 정확성의 추구나, 보편성에 입각한 원리·원칙의 추구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나 가치 없는 것만은 아니다. 쇼미니가 만든 '전쟁의 원칙' 같은 공식들은 오늘날에도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군사학교들에서 중요한 교재의 바탕이 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원리나 원칙들이 전쟁의 불확실성이나 우연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클라우제비츠의 대답은 물론 부정적이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어떠한 공식이 변화무쌍한 전쟁터에서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식의 교조주의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가 보기에 교조주의자들의 접근방법에서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전쟁의 불확실성·우연성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있었다. 교조주의자들은 불확실성·우연성이 주로 인간의 외부적 환경, 즉 지형·기후 등 전장환경이나 보급과 병력 충당 따위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학적·계량적 방법에서 해결책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외부적 환경은 일부분의 원인일 뿐이다. 클라우제비츠의 견해에 따르면 불확실성·우연성의 보다 근원적 원천은 인간의 내부적 환경, 즉 인간의 심리, 정신력 등에 있다. 또한 그는 교조주의적 이론들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그것들은 오직 고정된 값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므로 계산[판단]은 가변적 여지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들은 오로지 물리적[물질적] 계량만을 다루고 있지만, 모든 군사적 행동은 심리적 힘과 그 영향들로 위어져 있다. 그것들은 단지 한쪽 편의 행동만을

고려하고 있지만, 전쟁이란 양자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³³⁾

전쟁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며 심리의 힘이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그의 논의에서 새삼 그의 변증법적 논리와 정신력 강조의 진면목은 드러난다. 위의 인용문에 의할 것 같으면 불확실성은 상호작용의 관계상 적의 의도와 대응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도 생긴다. 이럴 경우 기껏해야 개연성(probability)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그 판단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순전히 운수(luck)에 속하는 요소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마이클 하워드 는 “심지어 가장 위대한 장군들조차도 그들의 판단을 단지 배짱에 의지한 ‘성공적인 도박꾼’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논평하였다.³⁴⁾

이처럼 전쟁의 불확실성·우연성이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이나 자유로운 선택력의 존재에 기인하기 때문에 클라우제비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요소(human factors)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즉, 그는 전쟁의 현장에서 주역인 지휘관과 그의 군대가 지니는 정신적·심리적 힘과 자유의지의 여지에 주목하였다.³⁵⁾

더구나 전쟁은 불확실성과 우연성의 영역임과 동시에 고통과 혼란과 피로와 공포의 영역이기도 하다.³⁶⁾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합해져서 클라우제비츠가 일컫는 ‘마찰’이 된다. 결과적으로 마찰은 전쟁을 순수분쟁(절대전쟁)으로부터 현실전쟁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전쟁을 비합리성의 영역에 머물게 만든다.³⁷⁾ 비합리성의 지배를 타개할 수 있는 이상적 代案으로 클라

33) *Ibid.*, p. 136.

34) Howard, *Clausewitz*, p. 25.

35) 그가 정신적·심리적 요소들을 강조한 주장들은 특히 제1권 제3장, 제2권 제3장, 그리고 제3권 제3-8장에 수록되어 있다.

36) Clausewitz, *On War*, pp. 113-114.

37) *Ibid.*, pp. 119-121.

우제비츠가 제시한 개념이 이른바 ‘군사적 천재’(military genius)이다. 군사적 천재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회에 논의하겠다.

여하튼 클라우제비츠가 그토록 강조한 정신력으로 되돌아 가보자. 그는 심지어 “물리력(물질력)이 나무로 만든 칼자루라면 정신력은 값진 금속을 베틀어 만든 칼날”이라는 비유까지 사용하였다.³⁸⁾ 그는 정신력을 지휘관의 정신력, 군대의 정신력, 국민의 정신력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지휘관과 부대의 자질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즉 지휘관과 부하들의 지적·정신적 역량, 군의 사기·자신감, 전쟁에 대한 열정, 충성심 등이다. 지휘관의 의지력, 결단력, 해안 등에 대한 강조는 「전쟁론」의 도처에서 거듭된다. 그는 전쟁의 온갖 예기치 않은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德目は 지성과 용기라고 갈파하였다. 지성은 혼돈 속에서도 진실(진리)로 이끌어주는 ‘內面的 빛’ 역할을 하고, 용기는 그 빛을 따르도록 만드는 힘, 즉 결단이다.³⁹⁾ 그가 가장 높이 꼽는 용기는 정신적·윤리적 용기, 즉 책임감에 의한 용기인데, 이것 또한 지성에 의해 일깨워지므로 결단의 원천 역시 지성인 셈이다. 이는 결국 “전쟁은 순전히 지성의 영역”이라고 한 그의 주장으로 귀결된다.⁴⁰⁾ 군인이 무식하면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쟁의 3위1체 가운데서 제2극(불확실성·우연성 등)을 설명할 때에, 클라우제비츠가 진정 위대한 군사이론가임을 새삼 드러내는 점은 그가 이 우연성을 제거해야 할 부정적 요소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해야 할 긍정적 요소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즉, 계몽시대 군사이론가들이나 심지어 쇼미니 같은 그와 동시대의 저명한 인물들이 우연성·불확실성을 축소 내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했던 반면에, 클라우제비츠는 유능하고 깨어있는 지휘관들이라면 오히려 불확실성과 우연성을 기회로 역이용해

38) *Ibid.*, p. 185.

39) *Ibid.*, p. 102.

40) *Ibid.*, p. 110.

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⁴¹⁾ 그에
게 있어서 불확실성과 우연성의 영역은 창조적 정신을 소유한 지휘관들에
게 자유의지의 발휘가 보장된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었다.⁴²⁾ 이 점에 있어
서 클라우제비츠는 인간과 인간행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당대의 관
념론 철학의 인식론 체계를 군사분야에 창조적으로 투영시킨 위대한 군사
사상가였던 것이다.

(4) 제3극: 합리성과 정치적 종속성

다음은 제3극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전쟁의 3위1체의 제3극은 '전쟁은 다
른 수단에 의한 정치(정책)의 계속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명제로 상
징된다. 이 명제는 클라우제비츠가 그의 전쟁연구 말년(아마도 1827년 무
렵)에 전쟁의 2중성(또는 2유형) 개념과 함께 그의 저술 全編을 일관된 논
리체계로 엮어 줄 연결고리로 고안해 낸 것이다. 그러나 이 명제는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제8권과 새롭게 수정을 마친 제1권 제1장에만 반
영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의 논리체계에 투영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제3극의 요체는 이를테면 전쟁의 본질과 그 현상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원초적 폭력이나 우연성·불확실성 같은 비이성적 또는 비합리적(비논리
적) 요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정치(정책)의
지배적이고 합리적인 속성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여

41)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의 모든 행동은 확실한 성공을 내다보고 취해진다기 보다는 개
연성(probability)에 기대는 것이 常例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최고의 모험이 최상
의 지혜가 될 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lausewitz, *On War*, p. 167. 다음의 논
평도 함께 참조할 것. Howard, *Clausewitz*, p. 14; Paret, "The Genesis of *On War*,"
pp. 17-18.

42)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에서 이 점을 보았고, 바로 이것을 이론으로 설명하려 했던 것
이다.

기에는 전쟁이란 국가의 정치적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상징인 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정치(정책)의 윤리적·도덕적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전쟁이 종속되는 정치(정부)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계산과 이성적 판단이 있다는 전제를 의미하는 것이다.⁴³⁾ 또한 이것은 역으로 정부(정치)는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군대(또는 군사적 힘)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함축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제3극의 요소인 합리성·이성은 국민과 군대의 사회적·애국적 에너지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국가체제와 군대를 개혁하고, 이를 통하여 나폴레옹의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는 클라우제비츠의 개혁가로서의 당위론적 주장과 悲願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런데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정책)의 연속”이라는 문구는 2가지의 상이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독일어 용어 ‘politik’은 2중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정책(policy)과 정치(politics)라는 아주 다른 뜻을 함께 내포한다. 이 용어를 ‘정책’으로 해석할 때는 3위1체의 제3극인 합리적 계산과 연계된다. 즉, 전쟁 수행(지도)은 합리적 계산의 계속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로 해석할 때는 3위1체 전체와 연계된다. 즉 총체적 사회현상으로서의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혼돈스럽고 예측불허의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⁴⁴⁾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정치와 전쟁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이 문제는 실로 클라우제비츠의 생애를 통틀어

43) 클라우제비츠는 물론 이성(합리성)과 정부가 언제나 꼭 합치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Clausewitz, *On War*, pp. 606-607.

44) 그러나 Paret은 “『전쟁론』에서 policy란 전쟁을 일으키고, 그 목적을 결정하고, 그 수행에 영향을 주고, 그 종결을 가져오게끔 하는 모든 정치적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함으로써 정책과 정치 사이에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다. Paret, “Clausewitz,” p. 210.

그의 사상체계를 지배하였고, 그를 군사사상가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탁견의 본보기이다. 그는 목적과 수단간의 변증법적 논리 체계로 정치와 전쟁을 연결 지었고, 그것을 통하여 전쟁을 정치에 종속시켰다.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전체 공동체 —전체 국민, 특히 문명 국민— 가 전쟁을 하게 될 때는 그 이유는 항상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되고, 전쟁은 항상 정치적 목적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전쟁이란 정치적 행동이다…… 이처럼 전쟁이 그저 정책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도구이고,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적 행위의 계속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정치적 목표는 목적이고 전쟁은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목적으로부터 동떨어진 수단이란 想定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⁴⁵⁾

위의 문구들이 뜻하는 바는 우선 전쟁은 고립된 행위도 아니고 자율적인 행위는 더 더구나 아니라는 것이다. 종이 위의 이론적 전쟁일 뿐인 절대전쟁이 실제의 현실전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많은 종류의 ‘마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정치는 전쟁의 유형과 強度, 규모, 성격 등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유무 즉 전쟁을 할까 말까의 여부까지도 지배한다. 예컨대 적의 군사력과 의지를 분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을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여 관철시키는 행위’로 定義하였을 때, 그 속에는 ‘나에게 보다 유리한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라는 뜻이 담겨 있다. 여기서 ‘나에게 유리한 평화(나의 의지)를 창출(관철시킴)하는 것’이 목적이고, ‘폭력의 행사(강요, 즉 전쟁)’는 수단이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폭력은 정치적 목적을 대신하거나 그것을 先行할 수 없다. 그래서 목적 없는 수단은 있을 수가 없다고 클라우제비츠는 말했던 것이다. 이

45) Clausewitz, *On War*, pp. 86-87.

와 같은 전쟁의 정치에 대한 종속성을 그는 “정치는 전쟁의 子宮,”⁴⁶⁾ 또는 “전쟁은 그 자신의 문법은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표현하였다.⁴⁷⁾ 전쟁의 논리는 정치가 부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성적(합리적)으로 지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전쟁과 정치의 관계에서 정치우위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역으로 전쟁의 본질인 폭력 때문에 전쟁이 굴레 벗은 말처럼 정치의 지배를 벗어나 오히려 정치를 지배할 수 있음을 경계한 통찰이기도 하다. 이점에서 그는 일부의 비판처럼 ‘절대전쟁의 신봉자’나 ‘피의 使徒’가 결코 아니다.⁴⁸⁾

물론 클라우제비츠가 이처럼 오해나 왜곡의 대상이 된 데에는 그의 독일 후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예컨대 독일 통일의 3걸 가운데 한 명으로 1857년 프러시아 참모총장이 된 몰트케(Helmuth von Moltke)는 「전쟁론」의 예찬자로서 어찌면 묻혀 버렸을 수도 있는 이 책이 온 나라의 주목을 끌게 만든 최대 공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자신과 그의 후계자들은 전쟁과 정치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였거나 무시하였다. 그들은 정신적 요소의 절대적 중요성, 지휘관의 결단과 자신감, 적 주력의 섬멸, 결정적 지점에 대한 힘의 집중 등 실전에서의 전쟁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올바르게 받아 들였으나, 정치에 대한 전쟁의 종속성 개념에는 소홀하였던 것이다.

3위1체론의 제3극의 결론적 의의는 국가나 정부, 또는 정책으로 대표되

46) *Ibid.*, p. 149.

47) *Ibid.*, p. 605.

48) 앵글로 색슨 계통의 이론가들과 군인들은 대체로 클라우제비츠의 眞意를 오해하거나 왜곡시킨 경향이 강하다. 그 대표적 인물이 리델 하트이다. B. H. Liddell Hart, *The Ghost of Napoleon* (New Haven: Yale Univ. Press, 1934), pp. 120-122; Liddell Hart, *Strateg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5), pp. 333-334, 352-357. 클라우제비츠에 대한 왜곡된 비판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Howard “The Influence of Clausewitz,” pp. 35-36, 38-41; Brodie, “The Continuing Relevance of *On War*,” pp. 45-46.

는 지적·합리적 요소가 전쟁을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전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본래 제1극의 원초적 폭력이나 격정같은 감정적 힘은 그 스스로 목적을 지니지 아니한(그래서盲目이라는 수식어를 붙임)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국가의지(정책)라는 합리적·이성적 힘이 작용하여 비로소 목적을 띄게 되고, 정치의 지배하에 '실천적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3위1체의 3가지 요소(극)들을 살펴보았는데, 3위1체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점은 3극을 개별적 요소로서 보다는 일체로서 해석할 때 진정으로 전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진정으로 의도했던 것은 이 3극 각각의 의미나 속성이 아니라, 이 3경향 사이의 내재적 긴장과 갈등 그리고 조화를 총체적·변증법적 시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즉 전쟁 현상의 한 극에서는 원초적 폭력·격정 같은 인간의 본능이 작용하지만, 다른 한 극에서의 우연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또 다른 한 극에서의 이성과 합리성이 함께 작용하여 본능적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전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제어(정지 : suspension)하고, 그로써 이론전쟁이 현실전쟁으로 현존하게 됨을 설명하려 하였다. 클라우제비츠의 3위1체론은 그가 전쟁수행의 과학적·원리론적 原則化를 거부한 결과 도출해 낸 이론 체계로서, 전쟁을 계량적·물리적(또는 물질적) 접근으로 설명하려는 사고체계를 반대하고 전쟁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정신(의지)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임을 강조한 산물이다. 그의 3위1체론은 인간 자체를 중시한 당대 관념론 철학 사조와 변증법적 논리체계를 전쟁 이론에 도입하고, 그 자신의 전쟁 체험과 전쟁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부단한 思惟와 추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탄생시킨 그의 전쟁본질론의 정수이다. 이 점에서 그는 위대한 전쟁철학자이다.

4. 軍事理論의 有用性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이론화하기 위해 필생의 역작인 「전쟁론」을 집필했지만, 그가 결코 추상적이고 思辨的인 목적으로 이 과업에 매진했던 것은 아니었다. 전쟁은 ‘현실의 문제’임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그가 자신의 이론을 체계화하면서 실질적인 목표, 즉 장래의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적(또는 적의 의지)을 분쇄하기 위한 의도 없이 이 일에 매달렸을리는 없다. 마이클 하워드의 말처럼, 클라우제비츠는 언제나 이론과 행동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이론은 처방식의 행동 준칙이나 규범화의 가능성에 대한 배척에서 출발한다. 즉 전쟁에는 과학적이고 불변의 원리가 있다는 벨로우나 조미니 類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클라우제비츠가 보기에 그들의 생각은 전쟁의 본질을 무시한 것이었다. 전쟁이란 인간의 정신적·심리적 작용이 쌍방간에 변증법적으로 난무하는 불확실성과 우연성의 영역이므로 그들의 주장처럼 어떤 ‘고정된 값’(fixed values)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 이론의 성립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⁴⁹⁾

그렇다면 군사이론의 효용과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크게 보아 인식적 기능, 실용적 기능, 교육적 기능 등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이론의 인식적(cognitive)효용이란 어떤 주제와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분별력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이론이 전쟁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얼핏 보기에 뒤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적용된 수단의 특성을 모두 설명

49) 그는 전술적 차원에서는 전쟁수행과 관련된 이론화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Clausewitz, *On War*, pp. 140-141.

하고, 그 수단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제시하고, 전쟁이 의도한 목적의 본질을 명쾌하게 규정하고, 심도 깊은 비판적 고찰로 전쟁의 모든 국면을 조정한다면, 그 이론은 주요 과업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론은 책에서 전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이론은 항상 그의 길을 비추어 주고,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판단력을 길러주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줄 것이다.⁵⁰⁾

피터 파렛은 이론의 인식적 기능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知的으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전쟁 현상의 필수적 요소들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을 포괄적인 구조 속에 결합시킬 논리적이고도 動態인 ‘연결고리’를 발견해 내는 것이 곧 인식적 기능이라는 것이다.⁵¹⁾ 이론의 인식적 기능이란 결국 어떤 주제나 事象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쟁에 대한 이해’ 그 자체가 「전쟁론」의 근본의도가 아니겠는가.

둘째는 이론의 실용적(utilitarian) 효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론이란 과연 실용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원래 클라우제비츠는 당시의 이론가들이 당연히 하고 있었던 이론과 실천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이론은 물론 항상 현실을 의식하고, 현실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지향해야 한다. 만일 논리라는 美名下에 어떤 이론이 현실과 동떨어진 무엇인가를 제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짓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현실을 완전히 설명하거나 반영할 수는 없다.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론이라 할지라도 현실 그 자체를 100% 그릴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클라우제비츠의 주장처럼 전쟁

50) Clausewitz, *On War*, p. 141.

51) Paret, “Clausewitz,” p. 193.

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처방적인 준칙 원리를 수립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무의미한 시도일 뿐이며, 결국 어떤 군사이론도 곧바로 실용적일 수는 없다.

이론은 결코 우리를 어떤 주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로 이끌어 주지는 못하며, 행동을 위한 준칙, 법칙, 교리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론의 주임무도 아니다. 그러나 이론은 우리의 판단력을 증대시켜 주고, 다듬어 줄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이 문제를 비평가의 작업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쓸모있는 이론은 비평의 필수적 기반이다…… 만일 비평이 이론의 기계적 적용 수준으로 전락한다면, 비평의 기능은 완전히 빛나가게 될 것이다…… 비평가는 결코 이론의 결과물을 법칙이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단지 군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판단의 조력자’로서만 써야 한다.⁵²⁾

군사이론이 할 수 있는 일은 군인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영역의 행위를 할 때에 평가기준이나 준거들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즉 어떻게 행동할까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폈다.

이론은 미래의 지휘관의 정신을 교육하거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스스로 獨學하는 것을 안내할 수 있을 뿐, 전쟁터까지 따라가서는 안된다. 이는 마치 현명한 선생은 젊은이의 知的 성장을 안내하고 자극할 뿐이지 그 젊은이를 평생토록 직접 손을 잡고 이끌지는 않는다는 것과 같다.⁵³⁾

지휘관은 객관적·과학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어떤 定型化된 원칙이나 준칙을 곧바로 적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敎理는 행위준칙이 결코 아니다. 만일 교리가 엄격한 행위준칙이라면 그것은 1급 비밀보다도 더 높

52) Clausewitz, *On War*, pp. 157-158. 홉 따옴표 강조는 첨가된 것임.

53) *Ibid.*, p. 141.

은 등급의 비밀사항으로 분류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이 그 교리책을 한 권만 확보하면 아군의 모든 지휘관들의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리는 다만 지휘관들의 정신과 技法을 교육시키기 위해 마련된 하나의 사례집일 뿐이다. 지휘관이 전쟁상황에서 따라야 할 기준은 다른 사람이 설정해 놓은 소위 준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이며, 이론이나 교리는 그 판단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론은 과학이라는 객관적 형태로부터 術(skill)이라는 주관적 형태로 진전되면 될 수록 더 효과적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⁴⁾ 이 말의 의미는 개념으로서의 이론이 지휘관에 의해 그의 정신속에 내면화되어 그의 지휘술에 녹아드는 상태가 될 때 이론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된다는 뜻일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 자체를 아는 것’(wissen: knowing that)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아는 것’(können: knowing how)이다.⁵⁵⁾ 이론의 내용을 아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 이론을 통해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실용적 지식이다.

셋째로, 이론은 교육적(pedagogic) 기능을 지닌다. 이론의 교육적 효용은 이론의 인식적·실용적 효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피터 파렛에 의하면 클라우제비츠는 참으로 조속하게도 이미 15세 때인 노이루핀 요새근무 시절에 지식이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⁵⁶⁾ 그 때 이래로 클라우제비츠는 평생 동안 교육에 관심이 지대하였고, 교육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당대에 이미 유명하였던 페스탈로찌(Johann H. Pestalozzi: 1746-1827)의 교육적 견해에 깊이 동조하였다. 즉, 교육이란 지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아니라 인간성을 개발하여 그것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을 활용하는 일이라

54) Clausewitz, *On War*, p. 141.

55) Howard, *Clausewitz*, p. 32.

56) Paret, “The Genesis of *On War*,” p. 8.

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이론의 역할을 일컬어 이론은 마치 현명한 승이 학생의 知的 성장을 인도할 뿐 그의 손을 평생동안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했던 견해는 이러한 페스탈로찌의 교육관과 직결되어 있다. 결국 클라우제비츠에게 있어서 이론의 교육적 기능이란 행동하는 인간의 판단력과 본능적 재능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이지, 기계적으로 외우기 위해 어떤 법칙이나 원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려고 했던 본래 의도는 그 이론을 통해 미래의 지휘관들을 교육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술적 전문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개별적 판단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미 군사이론의 교육적 기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어떤 군사이론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또한 현재의 실상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면, 그 이론은 학생들(미래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군사문제에 관한 스스로의 생각을 조직하고 계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용을 갖는 것이다.

끝으로, 군사이론의 교육적 효용과 관련된 전쟁사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클라우제비츠가 해박한 戰爭史家이고, 그의 전쟁이론이 풍부하고도 예리한 전쟁사 분석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은 「전쟁론」 전체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전쟁론」은 그야말로 역사적 사례의 언급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가 “의심할 나위 없이 전쟁술의 기초 지식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또 “역사적 사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경험과학에서 최상의 증거를 제공해준다”라고 말하였을 때,⁵⁷⁾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술 연구에 있어서 경험의 일차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전쟁사의 연구가 직접적 전쟁 체험의 결핍을 메워 주는 최선의 도구라는 신념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신념은 모든 高度의 군사문제 연구에 있어서 軍事史가 그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확신으로 연결되었다.

57) Clausewitz, *On War*, pp. 170, 164.

피터 파렛의 논평에 의하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이론은 전쟁사에 의해 인도되어 졌고, 오늘날 대부분의 군사이론가들도 전쟁의 충실한 이해를 위한 군사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⁵⁸⁾

오늘날 선진 각국의 군사교육 체계에 있어서 군사사가 그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또한 모든 고등의 군사이론 역시 군사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상식의 문제이다. 상식은 새삼스럽게 검증이나 논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군사교육에 있어서 군사사 과목을 확충한다거나 군사사 교수의 숫자를 보강하는 과제는 늘 험난한 논란과 좌절의 연속으로 점철되어 왔다. 선진 각국에서는 심지어 민간대학에서조차 광범하게 개설되어 있는 군사사 과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군사교육 기관에서 마저 밥상 위의 간장 종지처럼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치부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나라 군사교육의 후진성의 노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은 클라우제비츠가 역사(전쟁사)를 이해하고, 가르치고, 활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⁹⁾ 그는 전쟁사의 연구가 비판적 판단력을 기르는 연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역사적 사례를 선택하는 일부터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그는 전쟁사를 군인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유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례의 모음집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무런 성찰 없는 年代記나 군사 문헌 속에서 역사로 통칭되는 전략적·전술적 법칙 따위와 같은 소위 실용적 범례가 아니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상당히 많은 역사 기록물들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해서 별다른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역사가들도 모두가 당연히 믿을 만하다고 여겨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⁶⁰⁾

58) Paret, "The Genesis of On War," pp. 23, 12-13.

59) 이하의 논의는 주로 Howard, Paret, Brodie 등의 논평을 참고로 하여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군사이론과 마찬가지로 역사도 어떤 직접적인 교훈이나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쟁사도 단지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고 비판적 판단력을 증대시켜 줄 뿐이다.

5. 맺 음 말

우리는 어떤 고전을 읽을 때, 그 책으로부터 고리타분한 경구들을 찾아 내려는 의도 보다는 소위 ‘고전의 향기’를 느끼고자 한다. 이 경우 고전의 향취란 그 책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교훈이나 개념의 유용성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세대를 뛰어 넘어 고전을 읽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전의 향취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정도로 느껴지는 것은 않을 것이다. 저자가 그 고전 속에 일반화시켜 놓은 특정한 주제라 할 지라도 독자에 따라 수확하는 향취는 다른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전에서 곧바로 실용적인 어떤 지식이나 처방을 찾고자 하지는 않는다. 실용적인 원칙이나 규칙은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미 고전 속에는 이 시대에 곧바로 실용적인 처방은 남아 있지 않는 것이 常例이다. 결국 우리는 한 위대한 저자가 고도의 추론(abstraction)을 통해 고전에 일반화(generalization)시켜 놓은 사상과 주장으로부터 우리의 사고력을 계발시키고자 하는 자극과 영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피터 파렛에 의하면, 「전쟁론」은 처방이 아니라 분석을 더 중시한 저작이다. 즉, 클라우제비츠에게는 효과적인 전략적 틀이나 전술적 조치들을 고안해 내는 것보다, 전쟁의 항구적 요소들을 구별해 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60)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의 당대로부터 200년 이내에 유럽에서 벌어졌던 전쟁만을 연구재료로 삼았으며, 특히 프리드리히 대왕과 나폴레옹의 전쟁을 많이 인용하였다.

작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쟁론」은 오늘날에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⁶¹⁾

「전쟁론」에서 클라우제비츠는 정치와 전쟁간의 관계에 관하여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줌으로써 이 책이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책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원래 클라우제비츠는 이 책을 군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세의 군인들에게 군사적 성취(승리)를 위한 어떤 행동 준칙이나 교리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교조주의적 태도와 믿음을 경계하고 배격해 마지 않았다.

클라우제비츠가 진정으로 의도했던 것은 전쟁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탐구, 즉 전쟁이 인간정신과 의지의 지극히 특이하고도 극한적인 대결의 표출현상이라는 점을 이론으로써 설명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전쟁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토대 위에서만 건강한 군사전략과 리더십이라는 탑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는 전쟁의 3위1체론으로 집대성하였다. 3위1체론은 그의 전쟁이론의 精髓라 할 수 있다. 그는 또한 그의 논리를 군사이론의 인식론적·실용적·교육적 기능들과 연계해서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비판적 판단력'이라는 결실로 표현되었다. '비판적 판단력'이란 객관화된 이론으로부터 각자가 주관적으로 도출해 내야 하는 특수화된 개별적 수확이다. 따라서 불멸의 고전인 「전쟁론」으로부터 어떤 열매를 수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다.

(원고투고일 : 2005. 10. 4, 심사완료일 : 2005. 11. 18)

주제어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전쟁의 3위1체, 교조주의, 인간요소, 군사 이론의 기능

61) Paret, "Clausewitz," p. 187.

<ABSTRACT>

An Analysis of the Clausewitzian ‘Trinity of War’

Huh, Nam-sung

In the famous military and political classic *On War*, Carl von Clausewitz presents a comprehensive war theory – the “remarkable trinity” of war. The concept and the theoretical frame of the trinity is the essence of the Clausewitz’s war theories in *On War*. He concentrates his attention not to the phenomena of war, but to the true nature of war – war in itself – in order to understand what war is about, why war is coming, and how war can be managed.

Clausewitz defines the components of the trinity as (1) primordial violence, hatred and enmity; (2) the play of probability and chance; and (3) war’s element of subordination to rational policy. Among the three tendencies of the trinity, the first pole represents the irrationality, the second pole to the non-rationality or illogicality, and the third pole to the rationality of war. To analyze war in general or to understand a particular war requires the study of all three of these tendencies as a whole. If it ignored any one of them, or paid attention only to some of their components, a theory or policy would be flawed. War theory should remain suspended between the three magnets of violence, chance and probability, and politics that interact in every real war. Having identified these three tendencies that together make up war, Clausewitz then connects each of these forces “mainly” to one of three segments of society or of human actors, respectively: the people, the commander and his army, and the

government. In his view it was the task of the political leadership to abstract the energies of people and society into rational policy, which the army helps carry out.

The trinity unifies virtually all of Clausewitz's ideas in the rest of his book. For example, the first pole of violence and passion relates to his discussion of moral forces in war and the proposition of war as the act of organized violence, and as the clash of will. The second pole of chance and probability reflects his ideas on the role of military genius and the freedom of will in dealing with the 'fog' and 'friction' of war, as well as his idea of 'center of gravity.' The third pole of war's subordination to policy relates to his ideas about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ends and means, the dichotomy between absolute and limited war, and war as the continuation of policy. In conclusion, the trinity is to be called as the theoretical cornerstone of *On War*.

Key Words: *On War* by Carl von Clausewitz, Trinity of War, Dogmatism, Human Factors, Function of Military Theory

K C I